

제일모직, 수익성 전망 불투명

수요둔화에 원료가격 급등 ... 3/4분기 영업이익 325억원 불과

제일모직의 영업실적은 3/4분기 부진했지만 4/4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모직은 3/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6.7% 줄어든 725억원을 기록했다고 11월1일 공시했다. 그러나 자회사 에이스디지텍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400억원의 이익을 제외하면 순수 영업이익은 325억원으로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 김병기 연구원은 “전자재료는 전방산업 수요 둔화, 화학은 원료가격 급등, 패션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모두 부진했다”며 “하지만 4/4분기부터 화학사업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고, 패션 부문의 계절적 성수기가 다가오며, 전자재료 사업의 AM-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소재 신제품 출시 등으로 바닥권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 박태준 연구원은 “3/4분기에는 화학과 패션이 부진했지만 4/4분기에는 전 부문의 영업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어 708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며 “반도체 소재는 4/4분기에도 매출 호조가 지속되고, 디스플레이 소재 및 편광필름도 소폭이나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리츠종금증권 황유식 연구원은 “3/4분기가 저점으로 4/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라며 “2011년 2400억원에서 2012년 75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AM-OLED가 매력적”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증권 김종환 연구원은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4/4분기 영업이익은 439억원으로 3/4분기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디스플레이와 편광필름은 패널생산기업 가동을 하락에 따른 물량 축소로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1/02>